

地球의 危機와 東京宣言

『21世紀를 展望한 持續的인 開發의 推進과 地球資源保全을 위한 全世界의 環境戰略에 關해서, 各國은 國境을 超越한 協力과 努力이 必要하다』

지난 2월 27일 閉幕된 UN環境特別委員會(環境과 開發에 關한 世界委員會)의 東京會議에서 採擇된 “東京宣言”의 主題였다.

東京·紀尾井町の 赤坂프린스·호텔에서 19個國 環境專門人們이 參席, 非公開로 進行된 5日間の 東京會議은 1984年 10月 第1次會議인 제네바會議부터 따져서 8次會議가 되며 同時에 最終會議가 된다.

이번 東京會議을 끝으로 UN環境特別委員會의 任務도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會議에서 마무리된 最終報告書는 今年 가을 UN總會에 提出되어야 하므로 行政的인 職務處理上 UN環境特別委員會의 機能은 當分間 繼續될 것이다.

委員長인 부룬트·랜드 노르웨이首相은 自己나라 外相의 갑작스런 死亡으로 閉會式 前日 急據 歸國하여 副委員長인 수단의 맨놀·카리드 前外相이 委員長을 代身하여 閉會式을 主導하였고 “東京宣言”도 代讀하였다.

閉會式場에는 中曾根 日本首相도 參席하였는데, 委員들은 그 동안의 서로의 勞苦와 會議成果에 대한 慰勞, 나름대로의 評價를 交換하는 가운데 4年間 8次에 걸친 巡迴會議의 막이 내린 것이다.

UN環境特別委員會의 人的 構成은 委員長과 副委員長 그리고 專門委員 等 22名으로 되어있다.

UN人間環境會議인 “스톡홀름會議”時 事務局長이 있던 스트룽씨, 美國의 初代環境保護局長을 歷任한 라겔스·하우스氏, 蘇聯의 科學아카데미進化形態學 研究所 소코로프所長 등 環境專門家들이 多數 包含되어 있다.

부룬트·랜드 委員長도 首相就任 以前에는 環境相에 5年間 勤務한 經歷을 갖고 있다.

UN環境特別委員會는 1983年 12月 19日 第38次 UN總會決議에 依據 設立되었다.

UN總會 決議에 의해 設立되기는 하였으나 UN所屬機構는 아닌 獨立된 特別委員會이며 所屬委員들도 各 國家 및 國際機構의 代表格이 아닌 個人資格이다.

『하나뿐인 地球』(only one earth)라는 標語로 1972年 第1回 UN人間環境會議를 “스톡홀름”에서 開催하여 『人間環境宣言』을 宣布하였고 UN環境計劃(UNEP)도 創設하였으나 15年이 經過한 지금까지도 第2回 UN人間環境會議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1983年 UN環境計劃 管理理事會의 發議로 UN總會의 決議를 거쳐 UN環境特別委員會가 創立되게 된 것이다.

UN環境計劃 第11次 管理理事會(’83)에서는

“2000年을 향한 環境發展 報告書” 作成을 決議하고 이 報告書 準備를 위한 特別委員會 設立을 UN總會에 建議하여 同年 UN總會 決議 38/16에 依據 “環境과 改善에 關한 世界委員會(WCED) UN環境特別委員會(日本에서 改名)을 創立하게 된 것이다.

『2000年의 地球環境의 理想的인 모습을 模索하며 世界環境을 策定하기로 한다』 이것이 UN環境特別委員會 創立時의 “슬로건”이었다.

事務局은 “주네브”에 있다.

1984年 10月 제네바를 始作으로 1987年 2月 東京까지 8個 都市를 巡迴하면서 開催된 이 UN環境特別委員會는 UN環境計劃의 『2000年을 향한 環境展望報告書』 準備를 위한, WCED 報告書 作成을 目的으로 出發된 것인 만큼, 이번 東京會議는 이 報告書를 最終마무리 지우므로서 그 任務를 끝내는 最終會議가 된 것이다.

그동안 討議된 內容을 綜合하여 作成된 詳細한 長文의 最終報告書 「共有의 未來」는 아직 公表되지 않고 있다.

節次上 UN環境特別委員會의 東京會議에서 採擇된 이 報告書는 UN環境計劃 第14次(’87) 管理理事會에 提出되고, 管理理事會는 報告書에 대한 理事會의 見解와 UN環境特別委員會의 報告書를 添附, “2000年을 향한 環境展望報告書를 ’87 第43次 UN總會에 提出하게 되어 있다.

UN總會에 提出된 이 報告書는 앞으로 世界 모든 國家들의 環境政策의 指針으로 活用될 것이다.

UN環境特別委員會 歷代 會議·開催地

- 1次會議 제네바會議(스위스) ’84. 10. 1~10. 3
- 2次會議 자카르타會議(인도네시아) ’85. 3. 27~3. 29
- 3次會議 오슬로會議(노르웨이) ’85. 6. 21~6. 28
- 4次會議 상파울로會議(브라질) ’85. 10. 25~11. 4
- 5次會議 오타와會議(캐나다) ’86. 5. 26~5. 30
- 6次會議 헤라제會議(짐바브웨) ’86. 9. 15~9. 20
- 7次會議 모스크바會議(蘇聯) ’86. 12. 4~12. 12
- 8次會議 東京會議(日本) ’87. 2. 23~2. 27

“東京會議”의 主要議題

地球人口 40億, 160個가 넘는 國家들은 先進·開發國, 白人·有色人, 自由·共產圈 等 差異는 있어도 地球라는 宇宙船의 同乘客으로 共同運命體의 關係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地球의 健康을 維持하기 위한 環境保全은 人類의 運命과 聯關되는 主要한 課題이며 人類의 共通의 關心사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들은 共通의 將來에, 共同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고 부룬트·랜드 委員長은 東京會議 “總括의 基調演說에서 強調하였다(맨놀·카리드 副委員長 代讀).

아직도 地球規模의 環境汚染과 自然破壞가 繼續되고 있음을 想起시킨 것이다.

一般的인 課題로서

- 地域的인 二酸化炭素 濃度の 上昇
- 炭酸가스 增加에 의한 氣候의 變化
- 오존層의 破壞
- 酸性雨의 被害
- 砂漠化의 進行
- 野生種의 滅種 등

個別的인 事例로

- 아프리카의 饑餓
- 보바루化學工場 事故
-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事故
- 스위스倉庫火災에 의한 라인강에의 化學物質

流入 事故 등

深刻한 問題들이 指摘되었다.

이와같이 世界各地에서 問題로 되어있는 여러가지 現象에 대해서 論議를 거듭함으로써 世界的인 視野에서 效果的인 環境保全策을 講究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南北으로 指稱되는 先·後進國에서 “南”에 속하는 여러나라들은 아직도 貧困과 饑餓로부터 脫出이 一次的인 順位로서 工業化를 指向하는 開發 政策의 強行도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면 그래도 늦지 않다. 그러나 21世紀가 되면 그때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事態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危機感을 會議 底邊에 깔고 있었다.

“東京宣言”이란

東京會議 最終일에 公表된 8個項目의 指針인 “東京宣言”은 序頭에서

『環境과 開發의 主要問題를 再檢討하여 여기에 對處하기 위한 革新的, 具體的, 現實的인 行動, 提言의 實行』과 委員會의 役割을 明記하고, 委員會가 任務를 끝냄에 있어서

『풍요롭고 公正하며 安全한 將來를 構築할 수 있다』는 信念下에 世界 모든 나라들이 持續的 開發을 國內政策과 國際協力の 最優先 目標로 하고, 東京宣言의 內容을 『政策行動의 指針으로 採用하자』고 示唆하였다.

宣言의 要旨(8個 項目의 指針)

- ① 貧困은 環境惡化의 主된 要因이 됨. 成長의 回復를 圖謀한다.
- ② 지금까지의 成長과 相異한 持續性, 公平性, 社會的正義, 安全性, 成長의 質的인 轉換
- ③ 空氣, 물, 森林, 土壤 등 資源基盤의 保全과 強化
- ④ 持續possible한 人口水準의 實現
- ⑤ 技述의 方向轉換과 Risk管理
- ⑥ 政策決定에 있어서 環境과 經濟의 統合
- ⑦ 國際經濟關係의 改革
- ⑧ 國際協力の 強化

以上の 8個項目은 『先進國과 途上國은 國際協力を 強化하며 環境保全에 力點을 두고 持續的인 開發의 推進』을 強調한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UNEP의 “2000年 環境展望報告書”의 性格

이 報告書는 東京會議에서 作成된 報告書(共有의 未來)가 WCED의 最終報告書인 것처럼 UNEP의 最終報告書가 된다.

이 報告書는 準備過程에서 各國政府와 非政府組織, 그리고 產業界의 意見까지 수렴하여 持續的인 開發을 위한 長期戰略을 樹立하고 環境의 保全과 開發에 대한 人類 共通의 目標을 設定하며 一方進行的인 在來類型에서 脫皮한 바람직한 開發形態와 새로운 國際的 協力方向을 提示할 것으로 環境政策樹立에 重要한 指針으로 注目되고 있다.

“東京宣言”의 評價

외지에 의하면 “東京會議”에서 採擇된 “東京宣言”에 대하여 日本內에서의 意見도 好評만은 아닌 듯하다.

이 UN環境特別委員會(WCED)의 當初 設立에 대한 提唱자가 日本이었고 숙죄에 뜻이었던지는 몰라도 運營負擔金도 日本이 제일 많이 支出하고 있었다.

元來 日本은 『公害先進國』으로 불리었던 나라였다.

環境보다는 經濟를 第一로 삼았고, 開發이 環境에 優先으로 取扱되었다.

그뿐만아니라 日本이 他國 즉 經濟적으로 後進국이라는 나라들의 環境을 얼마나 破壞하였는가.

熱帶林등 他國의 環境을 破損하는 者, 毒性이 강한 驅虫劑 “크로루딘”(흰개비 殺虫藥)의 製造, 그리고 國內外에서 輿論이 심해져 使用이 禁止되자, 이를 回收하여 東南亞에 팔았고 역시 使用禁止된 殘留性이 강한 農藥BHC도 途上國에 輸出한 바로 그 日本이 이제는 『公害防止先進國』이 되어 開途國의 貧困脫出을 위한 工業化의 指向을 環境汚染과 自然破損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委員會의 名稱도 原名은 英語로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즉 『環境과 開發에 관한 世界委員會』로 고쳤다. 그리고 『開發』이라는 單語도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한편 閉會式날 委員會 主催로 開催된 심포지움에 公害病 患者나 團體는 出席이 拒否되었다.

“東京宣言”이 發表되자 東京會議에 關心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具體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東京宣言”은 대충 얼버무린 方向을 提示한 것으로 結論짓고 있다.

委員會에서 만든 것은 명든 地球의 診斷書일뿐 處方箋은 아니다.

『여러나라에서 여러 生覺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學習하여 共通 議題에 到達하였다』라고 카리드 副委員長은 東京會議의 意義를 強調하면서 『處方箋을 쓰는 것은 이 委員會의 領域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限界를 인정하였다.

부르트·랜드 委員長이 指摘한대로 問題는 『改善을 위한 措置가 大部分 취해지지 못한채 었다』는 점이었다.

(筆者·本會 盧弘鎭企劃委員)